

월요광장

못다 한 수학여행, 우리 함께 떠나는 날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려면, 그 전에 유사한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300번의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이요.

사람들은 트라우마와 관련 있는 장소를 피하려고 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은 사람이 지하철을 타지 않으려 하거나, 성수대교 붕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다리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심해지면 어떤 냄새, 건물, 상징에 반응하는 ‘회피 행동의 일반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회피 현상에 대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치유력 없이 ‘사건 장소 찾아가기’는 치료 효과를 얻기보다 상처를 악

화시킬 뿐이지요. 트라우마 생존자가 트라우마의 장소에 머무는 데 성공하면, 트라우마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입은 개개인이 그것을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인지 가늠하는 것은 그 참사를 대하는 공동체나 사회의 태도입니다. 불행에 대한 연대감과 고통에 대한 공감이 그 열쇠지요. 세월호 피해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 정의를 실현할 권리,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정당한 권리에 대해 일베의 ‘어목’이나 일부 정치권의 ‘세금 도둑’ 등 비하하는 표현은 끊임없이 ‘2차 외상’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들을 다시금 깊은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에세대역 열차사고’를 생각해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최악의 참사로 꼽히는 1998년 에세대 열차사고는 101명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차 바퀴 도입에서 시작된 참사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철도청을 상대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유가족들은 더 이상 기차역에 가지 못했고 기차나 전철을 타지 못했습니다. 역 근처 추모장소를 방문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노버의대 등의 정신과의사와 심리학

자들은 사고 직후부터 생존자와 유가족을 그룹으로 묶어서 3년간 심리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구조 담당자, 의사, 변호사, 언론인을 포함해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려는 독일 시민사회의 노력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고, 마침내 독일 철도청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세대 사고의 교훈은 독일 사회의 안전의식과 시스템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심리 전문가가 이끄는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의 경험과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 수 있었던 유가족들, 마침내 ‘에세대로의 치유여행’을 떠납니다. 딸을 잃은 한 유가족은 딸이 앉았던 열차와 같은 차량번호, 같은 좌석 번호에 앉아서 고통스런 기억 그리고 아픈 현실과 힘겹게 싸웁니다.

에세대역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온 몸을 다해 시를 낭송하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아 전화한 뒤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풍등에 담아 하늘로 날립니다. 에세대역에서 유족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지만, 계속되는 삶에 대한 희망이 어우러진 눈물일 터지요.

유족들은 얘기했습니다. “추모지에서 보낸 날과 그 뒤 함께 보낸 시간은 슬프면서도 행복했어요.” 고통의 기억을 당당하게 직면하는 경험 속에서 트라우마의 장

소와 두려운 기억이 따뜻한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세대로의 치유여행’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극복한 시금석입니다.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상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못다 한 수학여행을 마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떠나는 ‘제주도로 치유여행’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치유여행 - 사건 장소 찾아가기’는 충분한 사전 치료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세월호 같은 ‘집단 트라우마’는 개인을 넘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치유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 사회적 치유 위에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한 개인 치료, 그리고 상처 입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동체적 치유가 더해져야 합니다.

전 사회적 지지 속에 치유의 힘으로 성장한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못다 한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 비로소 세월호 참사는 치유의 첫 장을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 못다 한 수학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까요? “자신 안에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이 있다는 것을 겨울 한가운데에서 알았다”는 까뮈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그 날을 떠올려 봅니다.

다시,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저는, 바람에 날리는 벚꽃에도 가르르 웃음 터뜨렸을 ‘단원 고당’들하고 수학여행 떠나는 꿈을 꿀 것입니다.

법조칼럼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정우석 광주지검 검사

몇 년 전 필자가 초등학교 대상 학교폭력 예방 준비강연을 나갔을 때 일이다. 자기소개를 마치고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하려는데 손을 3~4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물었다.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순간 필자는 아이들이 검사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검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아는지 되물었다. 학생들은 “나쁜 사

람 처벌해요, 재판하는 사람이예요, 억울한 사람을 도와줘요, 드라마에 자주 나오요...” 등등 저마다의 생각을 얘기하였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검사가 하는 일에 대한 학생들의 얘기가 어쩌면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제대로 하였는지, 당사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는지 정으로 돌아오는 내내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더 사건 하나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변사 사건(범죄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였다) 단정할 수 없는 사건이 접수되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고, ‘대출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대출이 되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 3장이 발견되었다. 유서의 글씨체는

떨러 있었고, 두서없이 작성된 것으로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하다는 당사자의 얘기를 들을 수 없었다. 답답했다. 우선, 유서·통화내역·대출자료와 주변인물 확인을 통해 용의자 2명을 찾았으나, 이들은 변사자의 허락을 받고 대출을 받았을 뿐 변사자를 속이거나 때리고 협박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범죄혐의를 극구 부인하였다.

증거가 많이 부족했지만 주변 누구로부터 이해받을 수 없었던 변사자의 상처가 36장의 유서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에 단념할 수는 없었다. 용의자들은 변사자 명의 대출금 5000만 원을 대출 당일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학창시절 폭력성향이 있었던, 변사자의 학교 선배들이었다. 수사를 시작한 후 약 3개월 지났을 무렵 한 명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결국 용의자들 공갈죄로 구속 기소하여 모두 유죄

가 확정되었다.

그 후 변사자의 누나로부터 감사편지가 왔다. 변사자의 사망과 관련된 각종 소문으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던 중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 줬 가족들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필자가 몇 년 전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받았던 생각이 떠올랐고 기슴 한쪽에 뿌듯함이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요즘 필자는 학교폭력 예방강연을 가면,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검사가 하는 일에 대해 질문을 한다.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을 찾지 못해서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검사의 모습이 진정으로 검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엄정한 법 적용과 따뜻한 배려를 통해 이해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오늘도 다시 다짐해 본다.

기고

결핵 없는 세상 만들기, 나부터 동참해야



민연돈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장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또는 지인들을 만날 때 내가 결핵되지 사업에 관련된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다. “결핵이 아직 있나요? 우리 어렸을 때나 많았지.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라고.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고민하다가 “작년에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000명이 넘습니다”라고 말하면 놀라워하며 그제야 자세히 묻곤 한다.

사람들에게 결핵의 심각성에 대해 이 야기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고개를 가우뚱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다수는 ‘천연두’와 같이 이미 인류가 정복한 옛 질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을 금세 알 수 있다.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단일 감염병에

의한 사망원인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넘는 20억의 인구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2230명이었는데 같은 해 암 중 유방암 사망자가 2244명이었던 것을 보면 결핵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질병이다.

사람들은 내가 위와 같은 문어적 표현, 통계적 수치에 대해 언급을 하면 대부분 되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대국의 문턱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음에도 과거의 질병, 후진국 질병인 ‘결핵’하 나 되찾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이에 대한 답은 결핵의 역사 및 발생원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핵균은 기원전 5000년에 만들어진 이집트 미라에서, 또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발견된 석기시대(기원전 7000년) 유골에 있는 척추결핵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볼 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간을 괴롭혀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아직 위생관념이 자리 잡기 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살게 되면서 급속하게 증가했

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직후 열악한 환경과 특정지역 인구밀집이 원인이 되어 전 인구의 30%가 넘는 수가 감염자라고 알려졌다. 물론 결핵균이 인체에 침입한다고 해서 모두 전염성을 가진 결핵양성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핵 유행률이 지금보다 높았을 때 어린 시절을 보낸 대다수의 성인들은 소아 때 결핵균에 노출됐다. 이중 일부는 실제 결핵을 앓기도 했고 일부는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다. 결핵균 보유자의 90%는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고 지나가지만 10%정도만 결핵이 재발성화되며 뒤늦게 결핵을 앓는 것이다. 하지만 결핵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악화할 때까지 발병 여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주변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되어 의도치 않게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WHO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년 뒤 인류를 위협할 9대 질병’ 중 첫 번째가 바로 ‘결핵’이라고 한다. 결핵만큼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 결핵은 완전퇴치가 어려운 것일까? 결핵의 완전퇴치를 위해서는 다른 감염병과 달리 지속적인 고체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필요성에 비교하자면 100m 단거리경기

가 아닌, 마라톤이다.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전략과 우수한 심폐기능, 지구력이 필요하듯 결핵퇴치의 길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결핵을 ‘퇴치’라는 최종 골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정시점에서의 집중적인 노력보다는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 보건소의 철저한 환자관리, 협회의 조기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선검진과 고품격의 결핵균검사, 그리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은 “결핵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3월 24일은 ‘세계결핵의 날’이다.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도 시민참여 행사 ‘무료 결핵검진’을 전남은 23일 목포외 광장에서, 광주는 24일 유스퀘어 광장에서 엑스선 촬영, 객담검사, 혈당, 폐기능측정 등을 검사하며 결핵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결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는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부터 먼저’ 동참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핵퇴치의 그날은 어느덧 우리들 앞에 다가올 것이다.

社說

충격적인 무등산 군부대 기름 유출사고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부대(방공포대)에서 기름이 유출됐으나 군과 당국이 옛새가 되도록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정지 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무등산 공군 방공포대 내 6천 500ℓ 규모의 경유 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파손되면서 경유 172ℓ가 흘러나왔지만 기름 유출 옛새였던 20일 일반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유출된 기름은 배수로로 타고 정상에서 300m 아래 계곡까지 흘러들었으며 유출 사실은 사고 당일 기름띠를 발견한 등산객의 신고로 알려졌다. 군과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정상 부근 계곡을 중심으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배수로로 타고 기름이 번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의 어머니와 같은 산이자 역사의 산증인인 무등산이 기름 유출로 오염되면서 환경 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라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

는 군부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배관이 파손돼 기름이 흘러나왔으나 등산객이 신고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추가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쉬쉬하며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계곡까지 기름이 유출됐는데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군부대의 총체적 안전불감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적을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을 먹칠한 셈이다.

군과 광주시, 무등산관리사무소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복구에 나서야 한다. 복구 작업 뒤 정확한 피해 조사와 사고 원인 규명, 관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부대가 이제 정상에 주둔할 명분과 실리가 없어진 만큼 이전 추진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 국방부는 시민의 요구에 따를 것이라며 무등산이 기름 유출로 오염되면서 환경 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라니 충격을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단절되선 안 된다

가난한 지자체의 경우 그동안 지원해 오던 교육경비 지원을 이제 단절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군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내린 교육경비 제한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82개 시군구,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게 됐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정민석 선임연구원은 최근 교육경비 제한이 열악한 전남 교육 환경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펴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가 끊기면 그동안 이러한 지원으로 진행됐던 일선 학교의 학력 제고 사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지원 등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규모로는 173억여 원에 달한다. 따라서 재정지립도가 낮은 전남의 농촌 지역 15개 시·군의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행자부는 특히 울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한 액수만큼 국고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지침을 통보했다. 결국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교육투자를 해왔던 지자체가 국고 지원 감소에 발목이 잡혀 교육투자를 무조건적으로 포기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가 재정지립도 20% 미만으로 재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곳이어서 공교육조차 빈약한 수준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은 당장 재검토돼야 한다. 제한 규정 완화와 함께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좀더 적극적인 형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중국 청나라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6대 황제 건륭제가 죽은 지 50년째, 건륭제의 15번째 아들이자, 일찍이 황제로 즉위한 뒤에도 태상황제로 군림하던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힘을 쓰지 못했던 가경제는 아버지의 최측근이었던 ‘화신’과 그 일당을 전격 체포한다. 아버지 시신의 체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단행된 이 조치는 건륭제 시대의 방만한 재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

1799년 당시 몰수된 화신의 재산은 청나라 조정의 10년 수입액과 맞먹는 8억 여 냥. 훗날 정일전쟁의 대일 배상금 2억 냥과 의화단 사건으로 인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열강 8개국에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 4억5000만 냥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건륭제를 등에 업은 화신의 측재 수단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화신은 자금성(紫禁城)의 황색 우리기와 제조 및 교체를 비롯해 각종 궁전 건축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했으며 정수한 세금까지 가로챘다. 또 무기와 군량의 조달을 심복에게 독점시킨 것은 물론, 각종 군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들도 빼돌렸다.

뇌물을 받고 대역죄를 저지른 모든 죄를 사면해 줬으며 심지어는 불법으로 쌓아올린 자금을 기반 삼아 대규모 금융업까지 운영했다. 건륭제는 가마 짐꾼에서부터 시작한 이 ‘부패의 화신’을 총애해 호부상서, 의정대신 등의 고관으로 기용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줬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열 번째 딸 효공공주를 화신의 아들과 결혼까지 시켰다.

최근 들어 정부가 자원외교 의욕과 관련된 경남기업 및 석유공사, 그리고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는 포스코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등 이명박 전 정권과 관련된 부패·비리 청산작업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나랏돈 유용 그리고 정권권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지니고 있다. 물론,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권 유력인사와 결탁해 국가 재정을 축낸 것이 사실이라면 단죄는 불가피할 것이다.

가경제는 화신에게 능지처사를 명했다. 정권과 결탁해 수익을 올린 기업들이 결국 어떤 대차대조표를 받아든게 될지 궁금하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나랏돈 유용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01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